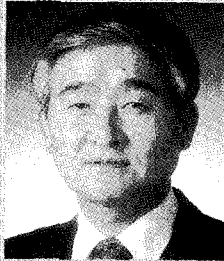


2001년에는 21세기의 목표를 향해 비상의 날개를 펼쳐야 한다



조 흥 원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고도의 지식정보화시대를 요구하는 새 천년의 시장여건과 경영환경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를 결코 동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변신의 노력과 다양한 채널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선진기술과 정보를 공유·활용하면서 한발 앞서가는 자세로 경영체계를 갖추어 간다면 우리 낙농육우산업도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더라도 두려움 없는 산업으로 성장·발전할 것임을 확신한다.

공 존과 상생, 창조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 첫 발을 디딘 지난 1년이 국내 낙농육우산업에 있어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날개짓이었다면 금년은 새천년을 각인해 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비상의 저력을 쏟아낼 실행의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의 문을 열자마자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출현으로 생존위협과 기반붕괴의 위기를 맞으면서 안이와 방관은 결국 생존과 직결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는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고,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일궈낸 위기극복의 결과는 결집된 힘의 위력을 과시한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새천년을 맞이하며 겪게 된 위기의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지난 천년을 뒤돌아 보며 새로운 다짐을 가질 기회를 주었고, 낙농육우산업의 중요성과 존재의 가치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의미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2001년은 낙농육우산업이 생명존중의 식량산업으로써 안정된 기반에서 순조로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결정지를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걱정스런 점은 국내 경기가 지난 3년간 침체된 불황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국내 낙농육우산업 역시 장미빛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계속된 원유수급 불균형과 소비위축은 13,000톤에 가까운 과잉재고분유를 적체시켰고, 생축수입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는 육우생산농가의 일손을 무디게 하며 경영의욕을 위축시켜 왔다.

21세기는 급변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시공의 개념을 초월한 경영전략과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추구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뿐만아니라 생명존중의 풍

토위에 환경친화적 산업만이 인간과 더욱 친밀해 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열악한 경영환경만 탓하여 왔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집단 이기주의를 양산했고, 성장과 지원속에 강인한 자구력도, 변화를 감지하는 순발력마저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어 시공이 무시되는 정보공유의 환경에서 서로의 생존을 담보한 씩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고와 변화에 신속히 적응해 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우리 낙농육우인들은 가마솥에 빠진 개구리의 교환마저 잊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이 안고있는 선결과제는 무엇이며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낙농분야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수급불균형의 폭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이다. 금년도의 예측된 수급전망은 생산 4~5% 증가에 소비 2~3% 증가로 보고 있다. 결국 비수기인 5월까지의 거의 20,000톤에 육박하는 분유가 적체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원유수급조절자금으로 420억원을 책정하여 지난해와 같이 분유차액 보전을 실시하고, 공급계약량을 초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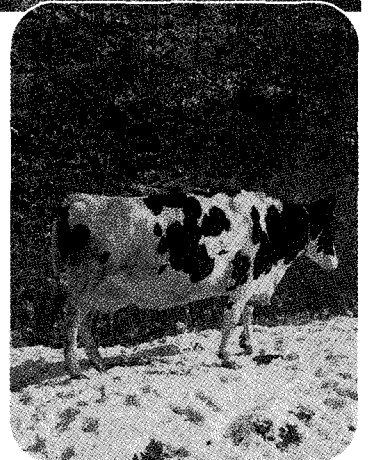


여 구입하는 가공품용 원유에 대하여 일정부분 원유대를 지원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하여 수급조절사업을 전개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지원할 재원은 한계가 있고, 임시방편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일시적 지원만으로 원유수급불균형의 난제를 타개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원유수급불균형의 근본원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면서 생산증가가 소비 증가를 추월하고, 고삐풀린 혼합분유의 수입량 급증, 그리고 계절적인 비수기가 그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낙농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구책이 병행된다면 그 해결과정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쇠고기의 수급문제는 금년부터 수입자유화는 물론 생축



수입까지 개방되므로 가격하락을 우려한 양축농가의 입식기피로 사육두수의 절대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99년에는 쇠고기 총소비량 375.4천톤 중 국내산이 240천톤으로 64%를 차지한 반면, 금년에는 총 410천톤 중 41%인 170천톤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자급율이 급격히 하락하

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양축농가들의 증식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로 낙농육우산업이 어떻게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개방에 대처해 갈 것인가이다. 국내 낙농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유가공품 수입에 대응하여 그동안 취해왔던 산업 피해구제조치가 WTO패널에서 패소함으로써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쇠고기 또한 금년 1월부터 생축과 함께 사실상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6월이후 혼합분유의 수입규제가 해제되면서 25천여톤의 엄청난 양이 수입되어 수급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다행스럽게 정부가 분유시세차익 일부를 보전하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내산 분유가격과의 격차를 줄여 다소나마 견제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단기적 대책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비록 지난해 뉴라운드 협상을 위한 시애틀 집회는 무산되었지만 협상진행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금년부터 더 강도높게 협상을 추진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시점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수급과 가격을 연계한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94년말 25천호를 상회하던 농가가 금년에는 절반인 13천호로 줄어들고 평균 호당사육두수는 45두까지 규모화된다. 장기적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라면 농가의 소득감소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는 요건을 갖추면서 원유의 차등가격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면서 국내산 제품이 외국산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낙농육우산업을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세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세계는 뉴라운드와 함께 그린라운드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축산 오·폐수에 관한 기사가 빠진적이 없을 정도로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와 악취는 사회적 문제거리로 부각되고, 환경파괴적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동반되는 환경의식은 축산경영에 적지않은 짐이되고 있음은 사실이나 맑고 쾌적하게 살고픈 국민의 작은 바람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혐오하는 산업은 결코 성장·발전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가축분뇨를 최대한 자원화하여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의 보존에 기여하면서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국민의 신뢰를 쌓고 도시인에게는 향수를 달래는 휴식장까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자리잡는다면 결코 우리 낙농육우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낙농육우산업은 땅에서 고부가가치의 식량을 생산하는 값진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안고있는 문제점과 풀어가야 할 과제는 그 어느 산업보다도 복잡하고 민감하다. 앞서 지적한 과제외에도 조사료부족과 빈약한 생산기반, 경직된 법과 제도, 그리고 느슨한 방역 체계와 비과학적인 경영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현안 문제 들이다.

고도의 지식정보화시대를 요구하는 새천년의 시장여건과 경영환경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를 결코 동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변신의 노력과 다양한 채널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선진기술과 정보를 공유·활용하면서 한발 앞서가는 자세로 경영체계를 갖추어 간다면 우리 낙농육우산업도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는다해도 두려움 없는 산업으로 성장·발전할 것임을 확신한다. 

〈필자연락처: 02-433-8151〉